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8 주차 (5:19~5:38)**

**(2015년 3월 15일 - 2015년 3월 21일)**

**(제3권 8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3 권 -8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3 월 15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http://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주일)

### 오늘의 말씀 (요 5: 19~29)

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 원문해석하기

- (19절)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Απεκρίνατο οὖ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ἔλεγεν αὐτοῖς·)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만약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ται ὁ υἱὸς ποιεῖν ἄφ' ἑαυτοῦ οὐδὲν ἐὰν μὴ τι βλέπῃ τὸν πατέρα ποιῶντα·)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행하시면 (ἃ γὰρ ἂν ἐκεῖνος ποιῇ,)  
아들이 그와 같이 그것을 행합니다 (ταῦτα καὶ ὁ υἱὸς ὁμοίως ποιεῖ.)
- (20절)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ὁ γὰρ πατὴρ φιλεῖ τὸν υἱὸν)  
그리고 그는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그[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καὶ πάντα δείκνυσιν αὐτῷ ἃ αὐτὸς ποιεῖ,)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큰 일을 그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καὶ μείζονα τούτων δείξει αὐτῷ ἔργα,)  
[그 결과] 당신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ἵνα ὑμεῖς θαυμάζητε.)
- (21절) 아버지께서 시체들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주시기 때문에]  
(ὥσπερ γὰρ ὁ πατὴρ ἐγείρει τοὺς νεκροὺς καὶ ζῶοποιεῖ,)  
이와 같이 아들도 역시 그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οὕτως καὶ ὁ υἱὸς οὗς θέλει ζῶοποιεῖ.)
- (22절)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사람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οὐδὲ γὰρ ὁ πατὴρ κρίνει οὐδένα,)

- 그러나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ἀλλὰ τὴν κρίσιν πᾶσαν δέδωκεν τῷ υἱῷ.)
- (23절)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 같이 아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ὅτι πάντες τιμῶσι τὸν υἱὸν καθὼς τιμῶσι τὸν πατέρα.)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ὁ μὴ τιμῶν τὸν υἱὸν οὐ τιμᾷ τὸν πατέρα τὸν πέμψαντα αὐτόν.)
-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ὅτι ὁ τὸν λόγον μου ἀκούων καὶ πιστεύων τῷ πέμψαντί με ἔχει ζωὴν αἰώνιον καὶ εἰς κρίσιν οὐκ ἔρχεται.)  
그는 죽음으로부터 떠나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ἀλλὰ μεταβέβηκεν ἐκ τοῦ θανάτου εἰς τὴν ζωὴν.)
-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시간이 옵니다 (ὅτι ἔρχεται ὥρα)  
바로 지금입니다 (καὶ νῦν ἐστίν)  
죽은 시체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ὅτε οἱ νεκροὶ ἀκούσουσιν τῆς φωνῆς τοῦ υἱοῦ τοῦ θεοῦ)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καὶ οἱ ἀκούσαντες ζήσουσιν.)
- (26절)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고 계신 것 같이 (ὥσπερ γὰρ ὁ πατήρ ἔχει ζωὴν ἐν ἑαυτῷ.)  
마찬가지로 역시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안에 가지게 하셨습니다  
(οὕτως καὶ τῷ υἱῷ ἔδωκεν ζωὴν ἔχειν ἐν ἑαυτῷ.)
- (27절) 그리고 그[아버지]가 그[아들]에게 심판을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καὶ ἐξουσίαν ἔδωκεν αὐτῷ κρίσιν ποιῆν.)  
왜냐하면 그가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ὅτι υἱὸς ἀνθρώπου ἐστίν.)
- (28절) 당신들은 이것을 놀라지 마십시오 (μὴ θαυμάζετε τοῦτο.)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ὅτι ἔρχεται ὥρα ἐν ἣ ἅπαντες οἱ ἐν τοῖς  
μνημείοις ἀκούσουσιν τῆς φωνῆς αὐτοῦ)
- (29절)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καὶ ἐκπορεύονται οἱ τὰ ἀγαθὰ ποιήσαντες εἰς ἀνάστασιν ζωῆς)  
그러나 무가치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οἱ δὲ τὰ φαῦλα πράξαντες εἰς ἀνάστασιν κρίσεως.)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씀하시자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에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9 절~23 절을 읽으십시오. 본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헬라이어 단어 ‘가르(γάρ, gar)’가 네 번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문맥이 어색해진다는 이유로 이 단어를 명확하게 번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가르(γάρ, gar)’라는 단어는 어떤 명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19 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선언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 20~23 절까지 네 번에 걸쳐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19 절에서 선언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19 절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보셨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자신도 행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진리(眞理)란 ‘참된 이치’를 뜻합니다. ‘이치’란 흔히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 원리’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에서 진리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는 ‘알레테이아(ἀλήθεια)’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하늘의 그 존재가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참(truth)이라고 인식하여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닌 ‘이미 하늘에 존재한 그것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리로 번역된 알레테이아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결국 알레테이아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보편적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19 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알레테이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아들에 의해 그대로 행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19 절의 근거로 제시한 네 가지를 γάρ(가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19 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γάρ:가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행하면 아들이 ‘그와 같이’ 그대로 행합니다. 여기서 ‘그와같이’ 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호모이오스’(ὁμοίως, homoios)인데 이 단어는 ‘동일한 본질’(the same nature)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들에 의해 이 땅에서 동일한 본질로 행해진다는 것이지요. 결국 지금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곧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일은 인식일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니 만약 유대인들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문제 삼는 게 되는 셈이지요.

둘째 가르(γάρ, gar)는 20 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γάρ)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그[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들보다 더 큰 일을 그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필레오’로서 예수님과 하나님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친밀한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간에 모든 것이 투명하게 100% 전달되고 실행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들이 임의로 무엇을 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없이 100% 투명하게 서로의 뜻이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20 절 후반절에서 예수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언급된 ‘그보다 더 큰 일’은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시체들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γάρ) 아들도 역시 그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복음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큰 일이란 바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은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살아 있고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과 연합된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은 바로 부활이지요. 시체를 다시 살려내는 일입니다. 지금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38년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친 사건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건은 단순히 어떤 병자를 치료해서 낮게 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부활의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한 사람도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yûp, gar) 아들에게 그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단순히 사람들의 지은 죄를 하나님이 재판하여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오히려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들이 예수님을 심판하여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결정하셨고 하나님은 그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인간이 아닌 스스로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라는 말 속에는 역설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9~22절 말씀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셔서 완수하신 것입니다. 23절을 읽으십시오. 23절은 “그 결과”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말씀을 온전히 내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월요일)

### 오늘의 말씀 (요 5: 19~29)

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 원문해석하기

- (19절)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νατο οὖ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ἔλεγεν αὐτοῖς·)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만약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ται ὁ υἱὸς ποιεῖν ἄφ' ἑαυτοῦ οὐδὲν ἐὰν μὴ τι βλέπῃ τὸν πατέρα ποιῶντα·)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행하시면 (ἅ γὰρ ἃν ἐκεῖνος ποιῇ),  
아들이 그와 같이 그것을 행합니다 (ταῦτα καὶ ὁ υἱὸς ὁμοίως ποιεῖ.)
- (20절)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ὁ γὰρ πατὴρ φιλεῖ τὸν υἱὸν)  
그리고 그는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그[아들]에게 보여줍니다  
(καὶ πάντα δείκνυσιν αὐτῷ ἃ αὐτὸς ποιεῖ.)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큰 일을 그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καὶ μείζονα τούτων δείξει αὐτῷ ἔργα.)  
[그결과] 당신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ἵνα ὑμεῖς θαυμάζητε.)
- (21절) 아버지께서 시체들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주시기 때문에]  
(ὥσπερ γὰρ ὁ πατὴρ ἐγείρει τοὺς νεκροὺς καὶ ζῶοποιεῖ.)  
이와 같이 아들도 역시 그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οὕτως καὶ ὁ υἱὸς οὗς θέλει ζῶοποιεῖ.)

- (22절)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사람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οὐδὲ γὰρ ὁ πατήρ κρίνει οὐδένα.)  
그러나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ἀλλὰ τὴν κρίσιν πᾶσαν δέδωκεν τῷ υἱῷ.)
- (23절)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 같이 아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ἵνα πάντες τιμῶσι τὸν υἱὸν καθὼς τιμῶσι τὸν πατέρα.)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ὁ μὴ τιμῶν τὸν υἱὸν οὐ τιμᾷ τὸν πατέρα τὸν πέμψαντα αὐτόν.)
-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ὅτι ὁ τὸν λόγον μου ἀκούων καὶ πιστεύων τῷ πέμψαντί με ἔχει ζωὴν αἰώνιον καὶ εἰς κρίσιν οὐκ ἔρχεται.)  
그는 죽음으로부터 떠나 생명으로 들어 갔습니다 (ἀλλὰ μεταβέβηκεν ἐκ τοῦ θανάτου εἰς τὴν ζωὴν.)
-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시간이 옵니다 (ὅτι ἔρχεται ὥρα)  
바로 지금입니다 (καὶ νῦν ἔστιν)  
죽은 시체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ὅτε οἱ νεκροὶ ἀκούσουσιν τῆς φωνῆς τοῦ υἱοῦ τοῦ θεοῦ)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καὶ οἱ ἀκούσαντες ζήσουσιν.)
- (26절)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고 계신 것 같이 (ὥσπερ γὰρ ὁ πατήρ ἔχει ζωὴν ἐν ἑαυτῷ.)  
마찬가지로 역시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안에 가지게 하셨습니다  
(οὕτως καὶ τῷ υἱῷ ἔδωκεν ζωὴν ἔχειν ἐν ἑαυτῷ.)
- (27절) 그리고 그[아버지]가 그[아들]에게 심판을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καὶ ἐξουσίαν ἔδωκεν αὐτῷ κρίσιν ποιεῖν.)  
왜냐하면 그가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ὅτι υἱὸς ἀνθρώπου ἐστίν.)
- (28절) 당신들은 이것을 놀라지 마십시오 (μὴ θαυμάζετε τοῦτο.)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ὅτι ἔρχεται ὥρα ἐν ἣ ἅπαντες οἱ ἐν τοῖς  
μνημείοις ἀκούσουσιν τῆς φωνῆς αὐτοῦ)
- (29절)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καὶ ἐκπορεύονται οἱ τὰ ἀγαθὰ ποιήσαντες εἰς ἀνάστασιν ζωῆς.)  
그러나 무가치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οἱ δὲ τὰ φαῦλα πράξαντες εἰς ἀνάστασιν κρίσεως.)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4 절 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떠나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성경을 읽으면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니체도 성경을 정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담긴 그분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 듣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알려진 마태복음 13 장을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제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sup>9</sup>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sup>10</sup>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 하시나이까 <sup>11</sup>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sup>12</sup>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sup>13</sup>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sup>14</sup>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sup>15</sup>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sup>16</sup>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sup>17</sup>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마13:9-17).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알아 듣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마가 복음에 따르면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막 4:10 참조)). 그 남은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마 13:11)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 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예수님 곁을 떠난 그 사람들은 말씀의 진의를 알아서는 안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만약 그렇게 들린다면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 6 장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sup>8</sup>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sup>9</sup>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sup>10</sup>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사 6:8-10).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존재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이니깐요.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sup>6</sup>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sup>7</sup>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sup>8</sup>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sup>9</sup>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막 7:6-9).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교훈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 말씀의 의미가 듣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 부활에 동참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원리, 이 세상에서 복받으려는 원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5 장 24 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떠나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은 인간들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그분이 직접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만약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알고 영접하였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나요? 당신의 결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듣는 자만 삽아납니다 (화요일)

### 오늘의 말씀 (요 5:19~29)

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 원문해석하기

- (19절)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νατο οὖ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ἔλεγεν αὐτοῖς·)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만약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ται ὁ υἱὸς ποιεῖν ἄφ' ἑαυτοῦ οὐδὲν ἐὰν μὴ τι βλέπῃ τὸν πατέρα ποιῶντα·)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행하시면 (ἃ γὰρ ἂν ἐκεῖνος ποιῇ),  
아들이 그와 같이 그것을 행합니다 (ταῦτα καὶ ὁ υἱὸς ὁμοίως ποιεῖ).
- (20절)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ὁ γὰρ πατὴρ φιλεῖ τὸν υἱὸν)  
그리고 그는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그[아들]에게 보여줍니다  
(καὶ πάντα δείκνυσιν αὐτῷ ἃ αὐτὸς ποιεῖ.)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큰 일을 그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καὶ μείζονα τούτων δείξει αὐτῷ ἔργα),  
[그결과] 당신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ἵνα ὑμεῖς θαυμάζητε.)
- (21절) 아버지께서 시체들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주시기 때문에]  
(ὥσπερ γὰρ ὁ πατὴρ ἐγείρει τοὺς νεκροὺς καὶ ζῶοποιεῖ),  
이와 같이 아들도 역시 그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οὕτως καὶ ὁ υἱὸς οὗς θέλει ζῶοποιεῖ.)

- (22절)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사람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οὐδὲ γὰρ ὁ πατήρ κρίνει οὐδένα.)  
그러나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ἀλλὰ τὴν κρίσιν πᾶσαν δέδωκεν τῷ υἱῷ.)
- (23절)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 같이 아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ἵνα πάντες τιμῶσι τὸν υἱὸν καθὼς τιμῶσι τὸν πατέρα.)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ὁ μὴ τιμῶν τὸν υἱὸν οὐ τιμᾷ τὸν πατέρα τὸν πέμψαντα αὐτόν.)
-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ὅτι ὁ τὸν λόγον μου ἀκούων καὶ πιστεύων τῷ πέμψαντί με ἔχει ζωὴν αἰώνιον καὶ εἰς κρίσιν οὐκ ἔρχεται.)  
그는 죽음으로부터 떠나 생명으로 들어 갔습니다 (ἀλλὰ μεταβέβηκεν ἐκ τοῦ θανάτου εἰς τὴν ζωὴν.)
-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시간이 옵니다 (ὅτι ἔρχεται ὥρα)  
바로 지금입니다 (καὶ νῦν ἐστίν)  
죽은 시체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ὅτε οἱ νεκροὶ ἀκούσουσιν τῆς φωνῆς τοῦ υἱοῦ τοῦ θεοῦ)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καὶ οἱ ἀκούσαντες ζήσουσιν.)
- (26절)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고 계신 것 같이 (ὥσπερ γὰρ ὁ πατήρ ἔχει ζωὴν ἐν ἑαυτῷ.)  
마찬가지로 역시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안에 가지게 하셨습니다  
(οὕτως καὶ τῷ υἱῷ ἔδωκεν ζωὴν ἔχειν ἐν ἑαυτῷ.)
- (27절) 그리고 그[아버지]가 그[아들]에게 심판을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καὶ ἐξουσίαν ἔδωκεν αὐτῷ κρίσιν ποιεῖν.)  
왜냐하면 그가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ὅτι υἱὸς ἀνθρώπου ἐστίν.)
- (28절) 당신들은 이것을 놀라지 마십시오 (μὴ θαυμάζετε τοῦτο.)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ὅτι ἔρχεται ὥρα ἐν ἣ ἅπαντες οἱ ἐν τοῖς  
μημείοις ἀκούσουσιν τῆς φωνῆς αὐτοῦ)
- (29절)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καὶ ἐκπορεύονται οἱ τὰ ἀγαθὰ ποιήσαντες εἰς ἀνάστασιν ζωῆς.)  
그러나 무가치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οἱ δὲ τὰ φαῦλα πράξαντες εἰς ἀνάστασιν κρίσεως.)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지만 그렇게 받아 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살아난 사람에게에는 좋은 소식이 되지만 반대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에는 복음만큼 불쾌하고 저주스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25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시간이 옵니다. 죽은 시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뜻 듣기에 복음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시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모든 감각이 죽고 숨이 끊어져 그냥 흙에 불과한 것이 시체입니다. 그런데 그 죽

은 시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방법은 단 한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있고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것이지요(요한복음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죄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sup>43</sup>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2-13).

정리하면, 죽은 시체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 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sup>44</sup>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sup>45</sup>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 1:23-25).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히 본인이 구원받은 경험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경험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26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예수님께 주어져서 그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육신을 유지하며 움직이는 원동력으로서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와 함께 동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에게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이나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 삶의 태도 등을 보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할 뿐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없다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요즘은 갈수록 인본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점검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정말 그리스도를 자

신의 구주로 영접했나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됩니까?  
무엇으로 이런 당신의 신앙을 입증할 수 있나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수요일)

### 오늘의 말씀 (요 5: 19~29)

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 원문해석하기

- (19절)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νατο οὖ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ἔλεγεν αὐτοῖς·)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만약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ται ὁ υἱὸς ποιεῖν ἄφ' ἑαυτοῦ οὐδὲν ἐὰν μὴ τι βλέπῃ τὸν πατέρα ποιῶντα·)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행하시면 (ἃ γὰρ ἂν ἐκεῖνος ποιῇ),  
아들이 그와 같이 그것을 행합니다 (ταῦτα καὶ ὁ υἱὸς ὁμοίως ποιεῖ).
- (20절)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ὁ γὰρ πατὴρ φιλεῖ τὸν υἱὸν)  
그리고 그는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그[아들]에게 보여줍니다  
(καὶ πάντα δείκνυσιν αὐτῷ ἃ αὐτὸς ποιεῖ.)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큰 일을 그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καὶ μείζονα τούτων δείξει αὐτῷ ἔργα.)  
[그결과] 당신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ἵνα ὑμεῖς θαυμάζητε.)
- (21절) 아버지께서 시체들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주시기 때문에]  
(ὥσπερ γὰρ ὁ πατὴρ ἐγείρει τοὺς νεκροὺς καὶ ζῶοποιεῖ.)  
이와 같이 아들도 역시 그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οὕτως καὶ ὁ υἱὸς οὐς θέλει ζῶοποιεῖ.)

- (22절)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사람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οὐδὲ γὰρ ὁ πατήρ κρίνει οὐδένα.)  
그러나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ἀλλὰ τὴν κρίσιν πᾶσαν δέδωκεν τῷ υἱῷ.)
- (23절)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 같이 아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ἵνα πάντες τιμῶσι τὸν υἱὸν καθὼς τιμῶσι τὸν πατέρα.)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ὁ μὴ τιμῶν τὸν υἱὸν οὐ τιμᾷ τὸν πατέρα τὸν πέμψαντα αὐτόν.)
-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ὅτι ὁ τὸν λόγον μου ἀκούων καὶ πιστεύων τῷ πέμψοντί με ἔχει ζωὴν αἰώνιον καὶ εἰς κρίσιν οὐκ ἔρχεται.)  
그는 죽음으로부터 떠나 생명으로 들어 갔습니다 (ἀλλὰ μεταβέβηκεν ἐκ τοῦ θανάτου εἰς τὴν ζωὴν.)
-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시간이 옵니다 (ὅτι ἔρχεται ὥρα)  
바로 지금입니다 (καὶ νῦν ἐστίν)  
죽은 시체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ὅτε οἱ νεκροὶ ἀκούσουσιν τῆς φωνῆς τοῦ υἱοῦ τοῦ θεοῦ)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καὶ οἱ ἀκούσαντες ζήσουσιν.)
- (26절)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고 계신 것 같이 (ὥσπερ γὰρ ὁ πατήρ ἔχει ζωὴν ἐν ἑαυτῷ.)  
마찬가지로 역시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안에 가지게 하셨습니다  
(οὕτως καὶ τῷ υἱῷ ἔδωκεν ζωὴν ἔχειν ἐν ἑαυτῷ.)
- (27절) 그리고 그[아버지]가 그[아들]에게 심판을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καὶ ἐξουσίαν ἔδωκεν αὐτῷ κρίσιν ποιεῖν.)  
왜냐하면 그가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ὅτι υἱὸς ἀνθρώπου ἐστίν.)
- (28절) 당신들은 이것을 놀라지 마십시오 (μὴ θαυμάζετε τοῦτο.)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ὅτι ἔρχεται ὥρα ἐν ἣ ἅπαντες οἱ ἐν τοῖς  
μημείοις ἀκούσουσιν τῆς φωνῆς αὐτοῦ)
- (29절)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καὶ ἐκπορεύονται οἱ τὰ ἀγαθὰ ποιήσαντες εἰς ἀνάστασιν ζωῆς.)  
그러나 무가치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οἱ δὲ τὰ φαῦλα πράξαντες εἰς ἀνάστασιν κρίσεως.)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7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자라는 말은 심판의 권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인자가 아니면 심판의 권세를 줄 수 없다는 말도 되지요. 그렇다면 ‘인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심판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를 정확히 알아야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자라는 말의 유래는 구약 성경 중 목시를 기록한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는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의 불이며 <sup>10</sup>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sup>11</sup>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의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sup>12</sup>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sup>13</sup>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sup>14</sup>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옳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단 7:9-14).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묘사된 분이 예수님이라면 인자(‘사람의 아들’이라는 뜻)는 단순히 우리처럼 언젠가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한 인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어떤 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와 심판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설명하신 심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7~21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up>17</sup>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하려 하심이라 <sup>18</sup>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sup>19</sup>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sup>20</sup>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sup>21</sup>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요 3:17-21).

여기서 심판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를 계시하셨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 그러다가 종국에는 절망에 이르는 것, 바로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8~2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들은 이것을 놀라지 마십시오.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나 무가치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인데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다른 한 부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선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빛가운데로 나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명명백백히 하나님 앞에 드러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D.A. Carson). 그렇다면 악한 일(무가치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과 무가치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서 ‘행한’으로 동일

하게 번역된 말이 실제로는 서로 다른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사람들(οἱ τὰ ἀγαθὰ ποιήσαντες)은 ‘일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포이에오’의 분사형인 ‘포이에산테스(ποίησαντες)’를 사용하였고, 무가치한 일을 ‘행한’사람들”(οἱ τὰ φαῦλα πράξαντες)은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성취하다’라는 의미의 ‘프라쏘’의 분사형인 ‘프라싼테스(πράξαντες)’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빛으로 나오는 대신에 자신들이 스스로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왔느냐?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고 그를 믿고 있느냐?입니다. 만약 지금도 행위로 자신과 남들을 평가하며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하나님의 뜻과 심판 (목요일)

### 오늘의 말씀 (요5:30~38)

30.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1.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32.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34.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5. 요한은 썬서 비취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 원문해석하기

- (30절) 나는 스스로 아무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μαι ἐγὼ ποιεῖν ἄπ' ἑμαυτοῦ οὐδέν·)  
내가 들은 것을 따라 나는 심판합니다 (καθὼς ἀκούω κρίνω,)  
그래서 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καὶ ἡ κρίσις ἡ ἐμὴ δίκαια ἐστίν,)  
왜냐하면 나는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ὐ ζήτῶ τὸ θέλημα τῶ ἐμῶν ἀλλὰ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 (31절) 만약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 증거한다면 (Ἐὰν ἐγὼ μαρτυρῶ περὶ ἑμαυτοῦ,)  
나의 그 증거는 참되지 않습니다 (ἡ μαρτυρία μου οὐκ ἔστιν ἀληθής·)
- (32절)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다른 분이 있습니다 (ἄλλος ἐστὶν ὁ μαρτυρῶν περὶ ἐμοῦ,)  
그리고 나는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임을 알고 있습니다  
(καὶ οἶδα ὅτι ἀληθής ἐστιν ἡ μαρτυρία ἣν μαρτυρεῖ περὶ ἐμοῦ.)
- (33절) 당신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ὕμεις ἀπεστάλκατε πρὸς Ἰωάννην,)  
그리고 요한은 그 진리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καὶ μεμαρτύρηκεν τῇ ἀληθείᾳ·)
-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ἐγὼ δὲ οὐ παρὰ ἀνθρώπου τὴν μαρτυρίαν λαμβάνω,)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함은 당신들이 구원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ἀλλὰ ταῦτα λέγω ἵνα ὑμεῖς σωθῆτε.)
- (35절) 그는 불타 비추는 램프였습니다 (ἐκεῖνος ἦν ὁ λύχνος ὁ καιόμενος καὶ φαίνων,)  
당신들은 잠시 그의 빛을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ὕμεις δὲ ἠθελήσατε ἀγαλλιοθῆναι πρὸς ὥραν ἐν τῷ φωτὶ αὐτοῦ.)

- (36절) 그러나 내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Εγὼ δὲ ἔχω τὴν μαρτυρίαν μεῖζον τοῦ Ἰωάννου.)  
아버지께서 그 일을 내가 성취하도록 나에게 주셨습니다  
(τὰ γὰρ ἔργα ἃ δέδωκεν μοι ὁ πατήρ ἵνα τελειώσω αὐτά.)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αὐτὰ τὰ ἔργα ἃ ποιῶ μαρτυρεῖ περὶ ἐμοῦ ὅτι ὁ πατήρ με ἀπέστειλεν.)
- (37절)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καὶ ὁ πέμψας με πατήρ ἐκεῖνος μεμαρτύρηκεν περὶ ἐμοῦ.)  
당신들은 어느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οὔτε φωνὴν αὐτοῦ πώποτε ἀκηκόατε οὔτε εἶδος αὐτοῦ ἑώρακατε.)
- (38절) 그리고 당신들은 그의 말씀을 당신들 안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καὶ τὸν λόγον αὐτοῦ οὐκ ἔχετε ἐν ὑμῖν μένοντα.)  
왜냐하면 그가 보내신 그를 당신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ὅτι ὃν ἀπέστειλεν ἐκεῖνος, τούτῳ ὑμεῖς οὐ πιστεύετε.)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0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들은 것을 따라 나는 심판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만이 전적인 권한을 쥐고 판단하고 결정하실 뿐 예수님은 어떠한 권한도 없이 다만 실행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소지가 많습니다. 먼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심판은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미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자신이 생각한 의, 자신이 생각한 거룩함에 매몰되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파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이 열매없는 삶에 매달려서 일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고 현재 우리 주위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째서 그러한 열매없는 삶에 매달려 살아갈까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의미와 결과, 그가 하신 일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인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그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매트를 들고 떠나라고 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선포하십니다. 진정한 안식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 즉,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중

교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이고 그들의 ‘믿음없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말한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스스로 결정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았습시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죄에 대한 댓가를 스스로가 치르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롬 6:23)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되지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여 남이 대신 치르는 방식입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어떠한 결정도 임의로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도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죽하셨으면 피땀을 흘리시며 그 잔을 옮겨 주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의 심판은 온 인류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온 몸으로 막아내고 대신 자신이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 뒤에 숨어 심판을 피할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 덕분에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대부분 우리의 예상을 깨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로마 총독부의 비호 하에 현세의 부와 권력을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중산층과 서민을 중심으로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누구보다 실천에 열심이던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유대 종파인 에셀(에세네)파는 철저한 금욕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고대하며 세상과 등진 삶을 살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읽어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의 실상을 자주 폭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동들은 오히려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정죄 당하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세상살이에 찌들고 힘없어 저주받은 자라고 천대받던 자들, 유대 공동체에서 매맞고 병들고 소외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실행하시며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예수그리스도를 향한 심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니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해 가야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된 의와 거룩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를 눈썹만치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니까요.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스스로 애써 변화시키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변화하려고 애 쓰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 보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를 100% 누리는 삶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나희로 구원얻게 하려 함이니라 (금요일)

### 오늘의 말씀 (요5: 30~38)

30.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1.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32.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34.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5. 요한은 썬서 비취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 원문해석하기

- (30절) 나는 스스로 아무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μαι ἐγὼ ποιεῖν ἄπ' ἐμαυτοῦ οὐδέν·)  
내가 들은 것을 따라 나는 심판합니다 (καθὼς ἀκούω κρίνω,)  
그래서 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καὶ ἡ κρίσις ἡ ἐμὴ δίκαια ἐστίν,)  
왜냐하면 나는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ὐ ζητῶ τὸ θέλημα τὸ ἐμὸν ἀλλὰ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 (31절) 만약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 증거한다면 (Ἐὰν ἐγὼ μαρτυρῶ περὶ ἐμαυτοῦ,)  
나의 그 증거는 참되지 않습니다 (ἡ μαρτυρία μου οὐκ ἔστιν ἀληθής·)
- (32절)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다른 분이 있습니다 (ἄλλος ἐστὶν ὁ μαρτυρῶν περὶ ἐμοῦ,)  
그리고 나는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임을 알고 있습니다  
(καὶ οἶδα ὅτι ἀληθής ἐστιν ἡ μαρτυρία ἣν μαρτυρεῖ περὶ ἐμοῦ.)
- (33절) 당신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ὕμεις ἀπεστάλκατε πρὸς Ἰωάννην,)  
그리고 요한은 그 진리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καὶ μεμαρτύρηκεν τῇ ἀληθείᾳ·)
-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ἐγὼ δὲ οὐ παρὰ ἀνθρώπου τὴν μαρτυρίαν λαμβάνω,)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함은 당신들이 구원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ἀλλὰ ταῦτα λέγω ἵνα ὑμεῖς σωθῆτε.)
- (35절) 그는 불타 비추는 램프였습니다 (ἐκεῖνος ἦν ὁ λύχνος ὁ καιόμενος καὶ φαίνων,)  
당신들은 잠시 그의 빛을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ὕμεις δὲ ἠθελήσατε ἀγαλλιοθῆναι πρὸς ὥραν ἐν τῷ φωτὶ αὐτοῦ.)

- (36절) 그러나 내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Εγὼ δὲ ἔχω τὴν μαρτυρίαν μεῖζον τοῦ Ἰωάννου.)  
아버지께서 그일을 내가 성취하도록 나에게 주셨습니다  
(τὰ γὰρ ἔργα ἃ δέδωκεν μοι ὁ πατήρ ἵνα τελειώσω αὐτά.)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바로 그일입니다  
(αὐτὰ τὰ ἔργα ἃ ποιῶ μαρτυρεῖ περὶ ἐμοῦ ὅτι ὁ πατήρ με ἀπέστειλεν.)
- (37절)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καὶ ὁ πέμψας με πατήρ ἐκεῖνος μεμαρτύρηκεν περὶ ἐμοῦ.)  
당신들은 어느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οὔτε φωνὴν αὐτοῦ πώποτε ἀκηκόατε οὔτε εἶδος αὐτοῦ ἑώρακατε.)
- (38절) 그리고 당신들은 그의 말씀을 당신들 안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καὶ τὸν λόγον αὐτοῦ οὐκ ἔχετε ἐν ὑμῖν μένοντα.)  
왜냐하면 그가 보내신 그를 당신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ὅτι ὃν ἀπέστειλεν ἐκεῖνος, τούτῳ ὑμεῖς οὐ πιστεύετε.)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만약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하여 증거한다면, 나의 그 증거는 참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공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살펴 보겠습니다. 공관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받는 광경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17절을 읽으십시오.

“<sup>43</sup>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sup>44</sup>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sup>45</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sup>46</sup>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sup>47</sup>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3:13-17).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대해 증거할 때에는 두 명이나 세 명의 증인의 입으로 그것을 확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신19:15참조).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혹은 자신의 신분에 관한 것이든 무엇이든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당시 세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내 내려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요1:29-34 참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것이지요. 31절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거하지 않는 대신에 자신을 증거할 분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하신 그 증거는 참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두 번에 걸쳐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그 중 한 번이 앞에서 본 예수님의 세례 당시 증거이고 두 번째가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인 증거입니다.

33~34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던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파견하여 세례 요한에게 직접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물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요1:19~28참조).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는 인간들에게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의 증거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 증거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사람의 증거가 필요할 정도로 궁색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큰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 사람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34절 후반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함은 당신들이 구원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꺼내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논쟁이 시작되게 된 계기를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쟁은 38년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에 ‘구원’을 얻은 사건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요? 38년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멀쩡한, 게다가 자칭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이 이들 유대인들에게 구원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안식이란 쉽입니다. 안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구원은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안식하는 것이 구원일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적어 보십시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신다 (토요일)

### 오늘의 말씀 (요5:30~38)

30.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1.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32.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34.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5. 요한은 쉰서 비취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 원문해석하기

- (30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μαι ἐγὼ ποιεῖν ἄπ' ἐμαυτοῦ οὐδέν·)  
내가 들을 것을 따라 나는 심판합니다 (καθὼς ἀκούω κρίνω,)  
그래서 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καὶ ἡ κρίσις ἡ ἐμὴ δίκαια ἐστίν,)  
왜냐하면 나는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ὐ ζητῶ τὸ θέλημα τὸ ἐμὸν ἀλλὰ τὸ θέλημ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 (31절) 만약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 증거한다면 (Ἐὰν ἐγὼ μαρτυρῶ περὶ ἐμαυτοῦ,)  
나의 그 증거는 참되지 않습니다 (ἡ μαρτυρία μου οὐκ ἔστιν ἀληθής·)
- (32절)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다른 분이 있습니다 (ἄλλος ἐστὶν ὁ μαρτυρῶν περὶ ἐμοῦ,)  
그리고 나는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임을 알고 있습니다  
(καὶ οἶδα ὅτι ἀληθής ἐστιν ἡ μαρτυρία ἣν μαρτυρεῖ περὶ ἐμοῦ.)
- (33절) 당신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ὕμεις ἀπεστάλκατε πρὸς Ἰωάννην,)  
그리고 요한은 그 진리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καὶ μεμαρτύρηκεν τῇ ἀληθείᾳ·)
-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ἐγὼ δὲ οὐ παρὰ ἀνθρώπου τὴν μαρτυρίαν λαμβάνω,)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함은 당신들이 구원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ἀλλὰ ταῦτα λέγω ἵνα ὑμεῖς σωθῆτε.)
- (35절) 그는 불타 비추이는 램프였습니다 (ἐκεῖνος ἦν ὁ λύχνος ὁ καιόμενος καὶ φαίνων,)  
당신들은 잠시 그의 빛을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ὕμεις δὲ ἠθελήσατε ἀγαλλιοθῆναι πρὸς ὥραν ἐν τῷ φωτὶ αὐτοῦ.)

- (36절) 그러나 내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Εγὼ δὲ ἔχω τὴν μαρτυρίαν μεῖζον τοῦ Ἰωάννου.)  
 아버지께서 그일을 내가 성취하도록 나에게 주셨습니다  
 (τὰ γὰρ ἔργα ἃ δέδωκεν μοι ὁ πατήρ ἵνα τελειώσω αὐτά.)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바로 그일입니다  
 (αὐτὰ τὰ ἔργα ἃ ποιῶ μαρτυρεῖ περὶ ἐμοῦ ὅτι ὁ πατήρ με ἀπέστειλεν.)
- (37절)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καὶ ὁ πέμψας με πατήρ ἐκεῖνος μεμαρτύρηκεν περὶ ἐμοῦ.)  
 당신들은 어느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οὔτε φωνὴν αὐτοῦ πώποτε ἀκηκόατε οὔτε εἶδος αὐτοῦ ἑώρακατε.)
- (38절) 그리고 당신들은 그의 말씀을 당신들 안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καὶ τὸν λόγον αὐτοῦ οὐκ ἔχετε ἐν ὑμῖν μένοντα.)  
 왜냐하면 그가 보내신 그를 당신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ὅτι ὃν ἀπέστειλεν ἐκεῖνος, τούτῳ ὑμεῖς οὐ πιστεύετε.)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5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그는 불타 비추는 램프였습니다. 당신들은 잠시 그의 빛을 즐기기를 원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을 폄하하거나 경쟁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사역만 보면서 끝까지 그를 따르는 것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15절을 읽으십시오.

“7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10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12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14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5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마 11:7-15).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자신의 온 몸을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한 빛이 아니라 잠시 불타 비추던 램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이 다했을 때 그가 비추던 빛도 사라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언제 그 빛이 사라졌을까요?

세례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계시될 때까지만 유효했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입니다(마11:13). 그 말은 모세를 시작으로 세례 요한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율법과 선지자(구약 성경)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향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만드시는 그 천국이 도래한 것이지요. 당신은 아직도 율법과 선지자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고 있나요?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성취하도록 한 일이며 그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예수님을 위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들립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취해야 할 그 일의 결국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를 증거하시고 그 증거를 우리가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각자의 체험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37~38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역설적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유대인들은 한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갖지 않았다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주 의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하나님)가 보내신 그(하나님의 아들)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 봤듯이 믿음은 우리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나누어 준 사람이 있고 나누어주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역설적 가르침’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사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인간에게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것을 29절에서 ‘무가치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일은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가치있고 실제로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치료한 것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이지요(빌3:4-9참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행했던 무가치한 일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온 이후 자신의 신앙 생활에서 바뀐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 보십시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